社會心理學硏究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1987, Vol. 3, No. 2, 85~112

의존상황, 인상평가차원과 특성에 따른 부적 효과의 분화*

조 긍 호 · 김 인 자
서 강 대 학 교

이 연구는 선기 필자(조, 1982a)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인상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 효과를 통해 검증한 것이다. 실험 I에서는 89명의 피험자에게 46개의 우리말 부적 인물평가형용사를 제시하고,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각각 평정하게 하여, 19개의 지적 특성어와 13개의 情的 특성어를 찾아내었다. 실험 II에서는 正·부 특성을 합하여 대상인물을 구성하고,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에서 각각 그에 대한 유용성의 인상을 평정시키면, 전자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에 의한 부적 효과가,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情的 특성에 의한 부적 효과가 각각 그 반대의 것보다 큼이 발견되었다. 실험 III에서는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의 인상판단을 시키면, 각각 지적 특성과 情的 특성에 의한 부적 효과가 그 반대의 것보다 큼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의존상황에서의 호오차원인상은 지적 특성을 단서로,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의 화친차원인상은 情的 특성을 단서로 하여 형성된다는 선기 필자의 이원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인상형성 장면에서의 부적 효과(negativity effect)는 지각대상인물이 正的 특성과 부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인상에 부적 특성이 正的 특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부적 특성의 인상평가과정에서의 수정력(modifying capacity ; 어떤 특성이 그것이 속한 단어조의 평가를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정도) 또는 정보가가 正的 특성의 그것보다 더 크다(Feldman, 1966)는 사실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설명양식

* 이 연구는 1986년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처리과정에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구본용, 신건호, 이영훈 군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대립되고 있다(Kanouse & Hanson, 1972 ; Freedman, Sears, & Carlsmith, 1981). 그 하나는 전경·배경가설(figure-ground hypothesis)이고, 또 하나는 부담지향가설(cost-orientation hypothesis)이다.

전경·배경가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正的 특성보다는 부적 특성을 접하는 빈도가 훨씬 희귀하므로 부적 특성이 판단의 준거점(judgmental anchor)이 되기 때문이거나(Zajonc, 1968), 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과정에서 正的 특성은 사회선망도(social desirability)가 높은 행동을 나타내고 부적 특성은 그것이 낮은 행동을 나타내므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한 부합적 추리(correspondent inference)의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Jones & Davis, 1965) 설명한다. 즉, 인상판단 과정에서 正的 특성은 배경자극으로, 부적 특성은 전경자극으로 부각되어, 부적 특성의 정보가가 正的 특성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담지향가설에서는 사람들은 판단 장면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이익추구경향보다는 부담회피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부적 특성의 정보가가 더 크게 된다고 본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익추구경향보다 부담회피경향이 더 강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학자마다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Parducci (1965)는 범위·빈도이론(range-frequency theory)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正·부의 연속선 상에 인상 특성들을 분포시킬 때 전반적으로 正的 특성이 많아 正的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게 되므로, 이 분포에서의 심리적 중립점(psychological neutral point)은 분포의 평균과 중앙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극단적인 正的 정보는 거의 없는 반면 극단적인 부적 정보는 많으므로, 심리적 중립점을 중심으로 보면 부적 특성의 분포범위는 정적 특성의 그것보다 훨씬 큰 반면, 그 빈도는 정적 정보의 그것보다 작다. 따라서, 판단 장면에서의 이익의 극대화는 正的 특성의 수를 늘이는 것보다는 부적 특성의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담회피경향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Kanouse (1971)는 正的 특성이 부적 특성에 의한 부담을 간섭하는 정도보다는 부적 특성이 正的 특성에 의해 얻는 이익을 간섭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간섭효과(interference effect)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설명양식은 각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Kanouse & Hanson, 1972), 부적 효과를 설명하는 그럴 듯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부적 효과는 인상형성 장면에서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모든 장면에서 항상 똑같은 정도로 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인상형

성과정에서의 正的 편향(positivity bias)이 큰 장면에서는 그것이 작은 장면에서보다 부적 효과가 더 크며, 또한 인상판단의 결과가 개인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록 부적 효과는 더 크다(Lau, 1979)는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찌기 Canavan(1969)은 판단장면에서 지각자의 관심이 무엇에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적 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적 효과의 상황결정가설(situational determinant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각자의 관심이 성공지향적인 상황에서는 부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실패지향적인 상황에서는 부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상판단 장면에서의 부적 효과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인상판단 상황에서의 지각자의 관심 또는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선기 필자(조, 1982 a)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검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의 이원모형은 타인에 대한 인상을 판단할 때 인상판단의 상황에 따라 인상판단의 차원과 인상판단의 단서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기초로 호오차원의 인상이 형성되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情的 특성을 기초로 화친차원의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련의 인상통합실험(조, 1982 b, 1983)과 대인기억실험(조, 1984, 1985, 1986)에서 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실험들에서는 대상인물에 대해 정보의존상황에서 호오차원의 인상을 형성할 때는 그가 가진 지적 특성에 주의가 집중되고, 효과의존상황에서 화친차원의 인상을 형성할 때는 情的 특성에 주의가 집중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부적 효과의 상황결정가설을 결부시켜 보면, 正·부의 특성을 공유한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을 형성시킬 때 정보의존상황과 호오차원 인상판단 장면에서는 주로 지적 특성에 의해 부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효과의존상황과 화친차원 인상판단 장면에서는 주로 情的 특성에 의해 부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 보려 하였다.

실 험 I

상기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에서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를 분류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기 필자

(조, 1985, 1986)는 피험자들에게 53개의 正的 인물평가형용사를 제시하여 이들의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각각 측정하고,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그것보다 의미있게 큰 것은 지적 특성어, 그 반대의 것은 情的 특성어라고 분류하였다. 이 실험은 이에 이어 부적 인물평가형용사에서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를 찾아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앞선 실험들(조, 1985, 1986)에서 부적 인물평가형용사를 제외시킨 것은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의 요인분석을 한 김성회(1982)의 연구에서 부적인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요인(제1요인)으로 묶이므로써,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의 경우 부적인 척도치를 갖는 단어들은 지적 평가와 情的 평가의 하위차원으로 분할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적인 단어들은 인상평가 상황에서의 중요도를 평정할 때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들을 앞선 실험들에서 제외시킨 까닭의 하나였다.

그러나, 부적 특성 자체의 두 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평정시키지 않고, 그러한 부적 특성의 소유 여부의 중요도를 평정시킨다면, 부적 특성에 있어서도 두 의존상황에서 고려되는 중요도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김(1982)의 연구에서 하나로 묶여진 부적 단어들도 지적 평가와 情的 평가의 하위차원으로 분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는 부적 특성 자체의 두 의존상황 각각에서의 중요도를 평정시키지 않고, 그러한 특성의 소유여부(예를 들면, "잔혹하다"의 경우 "잔혹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정도")의 두 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평정케 하여, 이를 기초로 부적 단어에서의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를 분류해 보려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89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였다.

재료작성 장성수(1978)의 자료에서 호오도치와 화친도치가 모두 부적인 인물평가형용사 46개를 뽑아 본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단어들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정도"라고 바꾸어 15개씩(맨 마지막 장은 16개) 3페이지에 걸쳐 인쇄하고, 각 형용사마다 −5~+5의 11점 척도를 그려 넣었다. 이 때 각 장마다 1, 6, 11번째 단어의 중요도 평정척에는 −5부터 +5까지의 숫자를 적어 넣은 다음, −부호의 숫자들 위에 "중요하지 않다",

+부호의 숫자들 위에 "중요하다"라고 기입해 넣고, 나머지 단어들의 평정척에는 각 숫자만을 적어 넣었다.

그 다음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에서 인상평가를 할 때 위에서 선정된 단어 각각의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기 위한 지시문을 작성하여 인쇄하였다. 이때 정보의존상황은 앞선 실험들(조, 1985, 1986)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책을 선정하여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이었고, 효과의존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권유하려 할 때"이었다. 사용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찾게 되느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읍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을 때와 우리가 가진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
> 이제 여러분이 (　　)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　　)라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다음 장에 제시된 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 주실 일은 (　　)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인상평가를 하겠는지를 평정해 주시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이 (　　)라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각각의 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그를 평가하겠는지를 평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보의존상황의 지시문에는 괄호 속에 "어떤 책을 선택하여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라고 적어 넣고, 효과의존상황의 지시문에는 괄호 속에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권유하려 할 때"라고 적어 넣은 다음, 그 밑에 줄을 그어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지시문과 특성 중요도 평정지 3장을 묶어 4장씩으로 이루어진 소책자를 의존상황별로 작성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절차 실험은 각각 49명과 40명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강의 단위별로 진행되었다. 실험자는 정규 강의시간에 강의실에 입장하여 학생들에게 실험에 참가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곧바로 소책자를 1권씩 배부하였다. 이때 49명의 반에게는 정보의존상황 소책자를, 40명의 반에게는 효과의존상황 소책자를 배부하고, 그 상단에 학번을 기재토록 하였다.

그 다음 실험자가 소책자의 지시문을 읽어 주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었다. 이때 피험자들은 묵독으로 따라 읽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평정척의 설명을 해 주고, 곧 이어 중요도의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질문사항은 개별

적으로 손을 들면 실험자가 다가가서 조용히 응답해 주었다. 이러한 평정에 약 15분이 소요되었는데, 전체의 평정이 끝난 후 이를 즉각 회수하였다.

그 다음 약 25분 동안 실험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심리학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첫번째 평정이 후속되는 평정에 미칠지도 모르는 기억효과를 상쇄키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소책자를 한권씩 배부하였는데, 이때는 먼저번에 평정하지 않은 상황의 소책자를 받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소책자 상단에 한번을 기재케 한 후 지시문을 다시 읽어 주었는데, 이때는 평정할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평정이 모두 끝난 후 소책자를 회수하였는데, 대체로 약 10여분이 소요되었다.

그러니까, 피험자들은 대략 반씩으로 나뉘어(49명과 40명) 일부는 정보—효과의존상황 순서로, 나머지는 효과—정보의존상황의 순서로 중요도 평정을 한 셈이다.

결과 및 해석

89명의 피험자들이 46개의 부적 인물평가형용사에 대해 평정한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형용사의 두 중요도 평정치 간의 적률상관계수(r) 및 두 중요도 평정치 사이의 차이(t)를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의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각 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1] · 상관 및 그 차이[2] (괄호 안은 SD)

특 성	정보의존상황 중요도 (A)	효과의존상황 중요도 (B)	r_{AB}	t_{A-B}
어리석다	3.25 (2.03)	-1.36 (2.57)	-.002	13.26**
멍청하다	3.11 (2.07)	-2.29 (2.32)	-.031	16.17**
미련하다	2.46 (1.98)	-2.02 (2.23)	.036	14.47**
저속하다	2.26 (2.21)	-1.51 (2.36)	.121	11.72**
불량하다	1.84 (2.49)	.21 (2.61)	.161	4.65**
입바르다	1.73 (2.73)	-1.53 (2.69)	-.017	7.96**
상스럽다	1.62 (2.14)	-.88 (2.52)	.237*	8.14**
미욱하다	1.36 (2.31)	-1.09 (2.30)	-.041	6.94**
냉정하다	1.26 (2.49)	3.04 (1.50)	.198	-6.39**
천박하다	1.20 (2.78)	-1.89 (2.36)	.132	8.57**
음흉하다	1.17 (2.76)	-.33 (2.64)	.345**	4.57**
괴상하다	1.06 (2.76)	-1.09 (2.38)	.321**	6.73**
야비하다	1.04 (2.68)	.91 (2.55)	.333**	.42

특 성	정보의존상황 중요도 (A)	효과의존상황 중요도 (B)	r_{AB}	t_{A-B}
잔 악 하 다	.97 (2.94)	2.03 (2.71)	.317**	-3.04**
불 손 하 다	.89 (2.41)	.35 (2.47)	.379**	1.87
악 랄 하 다	.81 (2.90)	1.69 (2.52)	.198	-2.40*
심 술 궂 다	.80 (2.67)	- .02 (2.54)	.261*	2.45*
조 급 하 다	.76 (2.50)	- .54 (2.49)	.115	3.71**
비 열 하 다	.67 (2.84)	1.00 (2.38)	.181	- .91
옹 졸 하 다	.67 (2.56)	1.15 (2.35)	.017	-1.29
건 방 지 다	.54 (2.45)	- .40 (2.41)	.206	2.91**
졸 렬 하 다	.52 (2.52)	.56 (2.25)	.068	- .13
방 자 하 다	.51 (2.51)	.11 (2.45)	.354**	1.31
무 례 하 다	.51 (2.60)	.35 (2.55)	.415**	.53
메 마 르 다	.47 (2.78)	2.31 (1.97)	.252*	-5.85**
냉 엄 하 다	.35 (2.99)	1.13 (2.44)	.053	-1.97*
싸 늘 하 다	.30 (2.55)	2.62 (1.85)	.015	-6.99**
도 도 하 다	.27 (2.67)	.80 (2.37)	.030	-1.42
냉 혹 하 다	.22 (2.70)	2.52 (1.92)	.050	-6.69**
박 정 하 다	.17 (2.37)	2.70 (1.90)	.137	-8.43**
야 멸 하 다	.09 (2.56)	2.27 (2.30)	-.020	-5.92**
무 정 하 다	.03 (2.50)	3.00 (1.46)	.158	-10.40**
뻔 뻔 하 다	- .11 (2.65)	.35 (2.60)	.012	-1.18
괴 팍 하 다	- .13 (2.71)	- .66 (2.44)	.271**	1.60
능 글 맞 다	- .18 (2.72)	-1.62 (2.29)	.390**	4.86**
소 심 하 다	- .19 (2.70)	1.15 (2.48)	.006	-3.45**
태 평 하 다	- .30 (2.63)	.11 (2.56)	.088	-1.12
투 박 하 다	- .39 (2.59)	.03 (2.40)	.085	-1.19
주 착 없 다	- .43 (2.49)	-2.06 (1.84)	.257*	5.70**
나 약 하 다	- .53 (2.72)	2.24 (2.37)	-.042	-7.08**
능 청 맞 다	- .61 (2.54)	-1.69 (2.48)	.260*	3.34**
딱 딱 하 다	- .62 (2.67)	- .31 (2.47)	.285**	- .93
당 돌 하 다	- .71 (2.66)	-1.49 (2.36)	.230*	2.38*
침 울 하 다	- .76 (2.64)	- .98 (2.53)	.278**	.65
궁 상 맞 다	- .91 (2.55)	-1.72 (2.07)	.092	2.44*
새 침 하 다	-1.40 (2.30)	- .33 (2.43)	.245*	-3.50**

1) -5~+5의 11점 척도에서 얻은 중요도치임.

2) t 값이 正的인 단어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적 특성어, 부적인 단어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情的 특성어라 볼 수 있음.

* $p < .05$ (r의 $df = 87$, 양방 ; t의 $df = 88$, 양방)

** $p < .01$ (r의 $df = 87$, 양방 ; t의 $df = 88$, 양방)

이 표에서 보면,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보다 유의하게 높은 형용사는 모두 19개(전체의 41.3%)이다. 이들은 어리석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저속하다, 불량하다, 입바르다, 상스럽다, 미욱하다, 천박하다, 음흉하다, 괴상하다, 심술궂다, 조급하다, 건방지다, 능글맞다, 주착없다, 능청맞다, 당돌하다, 궁상맞다 들로 대체로 지적 활동이나 과제수행 또는 지적 수준과 관계있는 지적 특성어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가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형용사는 13개(전체의 28.3%)이다. 이들은 냉정하다, 잔악하다, 악랄하다, 메마르다, 냉엄하다, 싸늘하다, 냉혹하다, 박정하다, 야멸차다, 무정하다, 소심하다, 나약하다, 새침하다 들로 모두 대인관계와 관련된 情的 특성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1982)의 자료에서와는 달리 본 실험의 절차에 의해서는 부적인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도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로 분류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Rosenberg, Nelson과 Vivekananthan(1968)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46개 형용사의 두 상황에서의 중요도 평균치를 기초로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치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치 사이의 전체 상관을 내 보면, $r = -.180$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되지 못한다($t = 1.22$, $df = 44$, $p > .05$)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이 두 차원의 평가특성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 위의 표에서 89명의 피험자들이 46개 형용사 각각에 대해 평정한 두 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 사이의 상관을 각 형용사별로 계산한 것이 r_{AB}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18개 형용사(전체의 39.1%)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나머지 28개(전체의 60.9%)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들 46개 형용사의 두 중요도 사이의 상관은 $-.042 \sim .415$ 사이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고, 그 중앙치는 $r = .160$이다. 〈표 2〉는 이러한 상관계수의 분포를 정리해 본 것이다.

〈표 2〉 상관계수 분포 범위 및 빈도

상관계수 범위	빈 도
.400 이상	1
.300 ~ .399	7
.200 ~ .299	11
.100 ~ .199	9
.000 ~ .099	12
-.001 이하	6

이 표에서 보면, $r = .300$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 형용사는 8개 뿐이고, 반면 $r = .200$ 미만인 형용사는 27개에 이르고 있다. 이로 보면, 46개 형용사의 두 중요도치 사이의 상관은 형용사 간에 차이가 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 험 Ⅱ

실험 Ⅰ과 선기 필자의 앞선 실험(조, 1985, 실험 Ⅰ)에서는 대학생을 피험자로 하여 각각 우리말 부적 인물평가형용사에서의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각각 NI, NS라 부르기로 함), 그리고 우리말 正的 인물평가형용사에서의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각각 PI, PS라 부르기로 함)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지적 특성은 효과의존상황에서보다는 정보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이고, 情的 특성은 정보의존상황에서보다는 효과의존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지적 특성과 情的 특성 각각으로 대상인물을 구성하여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에서 인상평가를 하게 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情的 특성이 더 중요한 단서로 부각될 것이다. 그리하여, PI나 PS 등 正的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대상인물의 인상평가의 경우, 정보의존상황에서는 PI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가 PS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보다 더 높을 것이고, 반대로 효과의존상황에서는 PS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가 PI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보다 더 높을 것이다(예언 1).

또한, PI와 PS로 구성된 대상인물에 각각 NI와 NS의 특성을 첨가시켜 正·부의 특성을 공유한 새로운 대상인물을 구성하면, 이때 NI와 NS가 첨가되므로써 PI, PS로 구성된 본래의 인물에 대한 인상평가치가 부적인 방향으로 수정되는 정도는 인상평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즉, 정보의존상황에서는 NI의 수정력이 NS보다 클 것이지만, 효과의존상황에서는 NS의 수정력이 NI보다 클 것이다(예언 2).

이 실험은 서론에서 도출된 부적 효과에 관한 가설을 이러한 두가지 예언으로 검증해 보려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84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였다. 이들은 46명(정보의존상황 조건)과 38명(효과의존상황 조건)의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재료 선정 PI, PS, NI, NS 각각에서, 장(1978)의 자료에서의 호오도치와 화친도치, 그리고 각각의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치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치가 평준화되도록 유념하면서, 다음의 단어들을 뽑아 본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 正的인 지적 특성어(PI) : 현명하다, 꼼꼼하다, 유능하다, 훌륭하다, 영리

하다, 틀림없다, 비범하다, 철저하다.

情的 특성어(PS) : 자애롭다, 너그럽다, 인자하다, 온화하다, 명랑하다, 호탕하다, 순박하다, 구수하다.

• 부적인 지적 특성어(NI) : 미워하다, 멍청하다.

情的 특성어(NS) : 무정하다, 나약하다.

이들 각각의 척도치의 평균과 그 분포범위는 〈표 3〉과 같다.

〈표 3〉 특성별 각 척도치 평균과 분포 범위

척도치 / 구분 / 특성		정보의존상황중요도[1]		효과의존상황중요도[1]		호 오 도[2]		화 친 도[2]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P	I	2.07	1.50~2.83	- .42	-1.26~ .41	1.68	1.23~2.04	1.52	.83~ 1.94
	S	.46	-.26~1.50	1.73	.83~ 2.58	1.86	1.56~2.20	1.88	1.63~ 2.07
N	I	2.24	1.36~3.11	-1.69	-1.09~-2.29	-1.12	-1.27~-.96	-1.28	-1.35~-1.21
	S	-.25	-.53~ .03	2.62	2.24~ 3.00	-1.03	-1.31~-.74	-1.17	-1.66~- .67

1) -5~+5의 11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2) -3~+3의 7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재료 작성 이들 단어들을 가지고 8개의 正的 단어조와 16개의 正·부 단어조를 만들었다.

正的 단어조는 PI에서 2개의 단어씩을 묶어 4개, PS에서 2개의 단어씩을 묶어 4개를 만들었다.

正·부 단어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正的 단어조합에 부적인 단어를 첨가해 3개의 단어(2개의 正的 단어와 1개의 부적 단어)로 구성하였다. 즉, PI단어조에 NI를 첨가한 단어조(PINI) 4개, PI단어조에 NS를 첨가한 단어조(PINS) 4개, PS단어조에 NI를 첨가한 단어조(PSNI) 4개, PS단어조에 NS를 첨가한 단어조(PSNS) 4개를 구성하였다. 이때 NI와 NS단어는 2개씩이었으므로, 이들 각각이 각 단어조에서 2번씩 반복되었다.

각 단어조는 "~하고 ~한 사람"과 같이 제시되는 형용사를 묶어 하나의 인물을 구성하도록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현명하고 꼼꼼한 사람" 또는, "현명하고 꼼꼼하며 무정한 사람"과 같은 식이었다. 각각의 인물을 기술한 다음, 그 밑에 -10~+10의 21점 인상평정척을 적어 넣었다. 인상평정척은 0.5 cm씩 등간격으로 구획된 10 cm의 가로선이었는데, 각 해당되는 점에 -10, -5, 0, 5, 10의 숫자를 적어 넣고, 나머지는 짧은 가로선으로 표시만 해 주었다. 하나의 인물과 그 평정척의 제시가 끝나면 인쇄지 전체에 가로지르는 가로선을 넣고 다음 인물을 제시하여, 서로 다른 인물임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正的 단어조 8개를 무선적으로 제시한 인쇄지 1장, 正·부 단어조 8개씩을 무선적으로 제시한 인쇄지 2장을 만들고, 그 위에 표지를 덮어 4장으로 이루어진 응답용 소책자를 제작하였다.

절차 실험은 2개의 집단(정보의존상황 조건과 효과의존상황 조건)으로 나뉘어, 집단적으로 정규 강의시간에 진행되었다.

실험은 응답용 소책자를 피험자들에게 배부해 준 후 지시문을 통해 피험자들이 처할 상황과 평정척을 설명해 준 다음, 각 인물에 대한 인상을 평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때 주어진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실험은 인상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타인의 여러가지 특성들을 보고, 이 특성들을 통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라도 서로 다르게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상을 평가해 내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 이제 여러분이 (　　)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다음에 제시되는 바와 같은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에 대한 인상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
> 즉, 여러분이 (　　)라는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여러분이 (　　)라는 상황에서 만난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지 하는 인상을 형성해 주시는 일입니다.
>
> 자, 그럼 여러분이 처한 (　　)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 상황에서 만난 A라는 사람의 여러가지 특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괄호 속의 내용은 의존조건에 따라 서로 달랐다. 정보의존상황조건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효과의존상황조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권유하려 할 때"라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각 조건의 피험자들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케 하기 위해 실험자가 이 각각의 상황을 교실 전면의 칠판에 쓰고, 이를 응답용 소책자의 표지에 적어 넣도록 하였다.

이때 또한 인상판단용 평정척도 칠판에 그려 놓고 설명해 주었다. 이 평정척에는 "제시된 인물이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만한 사람인지"라고 적어 놓고, 그 밑에 −10 ~ +10의 21점 평정척을 그려 넣은 다음, 양수의 숫자들 위에 "도움이 된다", 0 위에 "반반이다", 음수의 숫자들 위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써 놓았다. 이 평정척을 피험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배부받은 소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각 인물의 지시받은 의존상황에서의 유용성의

인상을 각 인물의 밑에 제시된 이러한 21점 평정척에 평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의 실험이 진행되는데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험설계 본 실험은 기본적으로 2(의존상황조건) × 2(PI · PS) × 2(NI · NS)에서 뒤의 두 요인이 반복 측정된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맨 뒤의 요인은 正·부 단어조에서의 결과(부적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될 것으로, 正的 단어조의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이 요인은 제외된다.

결과 및 해석

본 실험의 종속측정치는 두 조건 피험자들이 제시되는 대상인물에 대해 평정한 유용성 인상평정치이었다.

正的 단어조 결과 본 실험에서 正的 단어조에 대한 인상평정치의 결과는 선기 필자의 이원모형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두 의존상황조건의 피험자별로 각각 4개씩의 PI 단어조와 PS 단어조에 대해 평정한 인상평정치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의존상황별 PI 단어조와 PS 단어조에 대한 인상평정치의 전체 평균치 및 그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正的 단어조 상황조건별 인상평정치 평균** (괄호안은 SD)

단어조 / 상황조건	지적 특성 (PI)	情的 특성 (PS)
정보의존상황 (n = 46)	15.95(1.87)	11.45(3.10)
효과의존상황 (n = 38)	10.82(2.74)	17.43(1.71)

〈표 5〉 **正的 단어조 인상평정치의 변량분석 요약표**

변 산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589.91	83		
의존상황(A)	.13	1	.13	.02
집단내피험자(S, 오차a)	589.78	82	7.19	
피험자내	1,524.34	84		
PI · PS(B)	19.48	1	19.48	4.14*
$A \times B$	1,118.56	1	1,118.56	237.44**
$B \times S$(오차b)	386.30	82	4.71	

* $p < .05$

** $p < .01$

〈표 5〉에서 보면, PI 단어조의 전체 인상평정치(13.27)와 PS단어조의 그것(14.16) 간에 유의한 차이가 검출되었다[$F(1, 82) = 4.14$, $p < .05$]. 하지만, 단어조 간 인상평정치의 이러한 차이는 의존상황 조건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F(1, 82) = 237.44$, $p < .01$]. 이는 〈표 4〉에서 보듯이, PI의 경우에는 정보의존상황 인상평정치가 효과의존상황의 그것보다 높고($t = 9.68$, $df = 82$, $p < .01$), 반대로 PS의 경우에는 효과의존상황 인상평정치가 정보의존상황의 그것보다 높음($t = 9.69$, $df = 82$, $p < .01$)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예언 1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선기 필자의 이원모형에서 예측하는 대로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을,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情的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이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적 정보 효과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똑같은 正的 단어조에 대한 인상평정치도 의존상황 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正·부 단어조의 인상평정치를 단어조 간이나 의존상황조건 간에 직접 비교해서는 부적 효과를 분석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 대신 Feldman(1968)이 제

〈표 6〉 각 단어조 상황조건별 부적 효과 평균치 (괄호 안은 SD)

단어조 / 상황조건	PI		PS	
	NI	NS	NI	NS
정보의존상황($n = 46$)	5.07(3.01)	4.66(2.90)	4.24(2.32)	3.43(2.72)
효과의존상황($n = 38$)	.57(2.82)	4.59(3.09)	1.74(2.13)	6.90(3.21)

〈표 7〉 부적 효과 변량 분석 요약표

변 산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1,335.43	83		
의존상황(A)	67.41	1	67.41	4.36 *
집단내피험자(S, 오차 a)	1,268.02	82	15.46	
피험자내	2,368.61	252		
PI·PS(B)	10.84	1	10.84	1.88
$A \times B$	159.11	1	159.11	27.67 **
$B \times S$(오차b)	471.48	82	5.75	
NI·NS(C)	330.20	1	330.20	46.65 **
$A \times C$	562.86	1	562.86	79.52 **
$C \times S$(오차c)	580.45	82	7.08	
$B \times C$	2.77	1	2.77	.95
$A \times B \times C$	12.24	1	12.24	4.20 *
$B \times C \times S$(오차 bc)	238.66	82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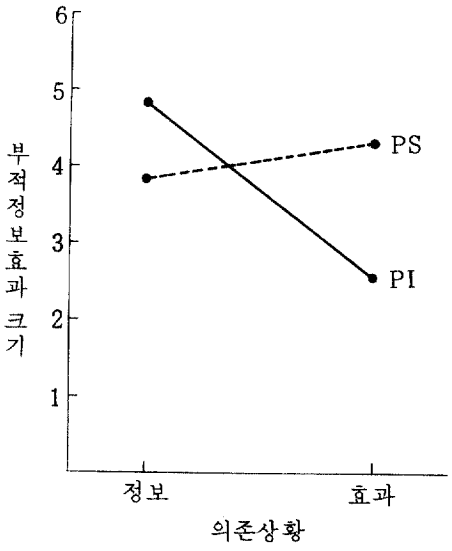
* $p < .05$
** $p < .01$

시하듯이, 부적 효과는 부적 특성의 첨가로 인해 정적 특성만으로 구성된 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가 수정되는 정도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해당되는 〔正的 단어조 인상평정치 − 正·부 단어조 인상평정치〕를 부적 효과의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각 의존상황 조건의 피험자별로(PI·PS) × (NI·NS)의 4개 단어조에서 해당되는 4개씩의 대상인물에 대한 이러한 부적 효과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각 단어조별 전체 부적 정보 효과의 평균치와 그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앞의 〈표 6〉 및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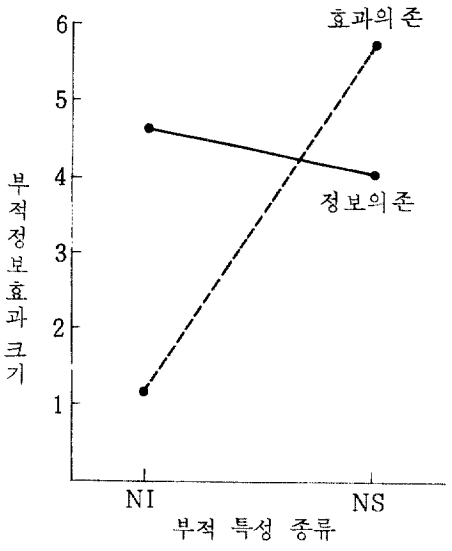
〈표 7〉에서 보면, 의존상황 간의 부적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1, 82) = 4.36$, $p < .05$〕. 이는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전반적인 부적 효과(4.35)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그것(3.45)보다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존상황에서는 NI가 첨가됨으로 인한 부적 효과(4.65)나 NS가 첨가됨으로 인한 부적 효과(4.05)가 별 차이 없이 대체로 큰 반면($t = 1.87$, $df = 45$, $p > .05$), 효과의존상황에서는 NS가 첨가됨으로 인한 부적 효과(5.75)는 아주 크지만 NI가 첨가됨으로 인한 부적 효과(1.15)는 이보다 유의미하게 작아($t = 9.05$, $df = 37$, $p < .01$) 전반적인 부적 효과의 크기가 낮아졌던 데 그 까닭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7〉에서는 의존상황과 PI·PS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F(1, 82) = 27.67$, $p < .01$〕. 이는 정보의존상황의 경우에는 PI단어조에서의 부적 효과(4.86)가 PS단어조에서의 그것(3.84) 보다 크지만($t = 2.50$, $df = 45$, $p < .05$), 효과의존상황의 경우에는 반대로 PS 단어조에서의 부적 효과(4.32)가 PI 단어조에서의 그것(2.58)보다 큼($t = 5.86$, $df = 37$, $p < .01$)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를 도시한 〔그림 1〕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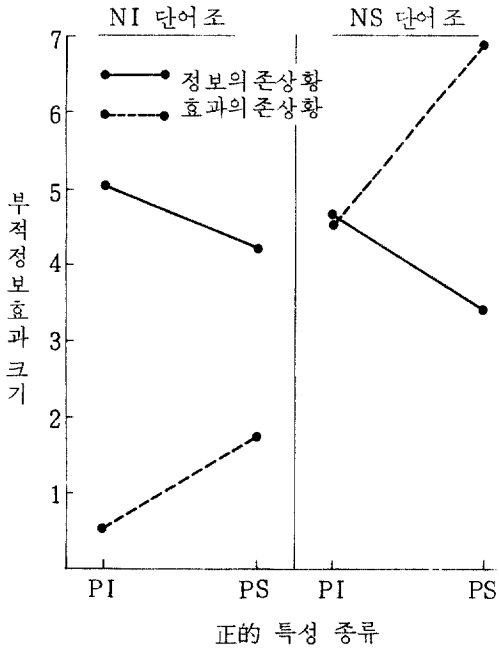


〔그림 1〕 의존상황과 PI·PS별 부적 효과

여기서 지적 특성과 情的 특성은 각각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인상판단의 단서가 되는 특성이라는 점과, PI 단어조와 PS 단어조는 각각 지적 특성이나 情的 특성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나(PINI와 PSNS의



〔그림 2〕 의존상황과 NI·NS별 부적 효과



〔그림 3〕 부적 효과의 3원 상호작용

경우) 또는 그 수가 많은(PINS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 2개와 情的 특성 1개, PSNI의 경우에는 情的 특성 2개와 지적 특성 1개) 단어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부적 효과는 각 의존상황에서의 해당 단서특성이 우세한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본 실험에서의 예언 2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서는 NI·NS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F(1, 82)=46.65$, $p<.01$〕. 이는 전반적으로 NI에 의한 부적 효과(3.07)보다 NS에 의한 부적 효과(4.82)가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의존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F(1, 82)=79.52$, $p<.01$〕. 즉, NI에 의한 부적 효과는 정보의존상황(4.65)에서가 효과의존상황(1.15)에서보다 큰($t=7.41$, $df=82$, $p<.01$) 반면, NS에 의한 부적 효과는 효과의존상황(5.75)에서가 정보의존상황(4.05)에서보다 크다($t=3.01$, $df=82$, $p<.01$). 이러한 경향은 〔그림 2〕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실험의 예언 2를 직접 지지해 주고 있는 결과이다.

의존상황과 부적 특성의 종류(NI·NS)에 따른 이러한 부적 효과의 분화 경향은 그러한 부적 특성이 첨가되는 正的 단어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실은 의존상황×PI·PS×NI·NS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F(1, 82)=4.20$, $p<.05$〕는 결

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보듯이, NI가 첨가됨에 따른 두 의존상황 간의 부적 효과의 차이는 PI 단어조(4.50)에서가 PS 단어조(2.50)에서보다 크지만, NS가 첨가됨에 따른 두 의존상황 간의 부적 효과의 차이는 PS 단어조(3.47)에서가 PI 단어조(−.07)에서보다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NI 단어조에서는 정보의존상황의 부적 효과가 효과의존상황의 그것보다 크지만($t_{PINI}=7.02$, $df=82$, $p<.01$; $t_{PSNI}=5.10$, $df=82$, $p<.01$), 그 상대적 차이는 PINI 단어조(4.50)에서가 PSNI 단어조(2.50)에서보다 크며, 반대로 NS 단어조에서는 PSNS 단어조의 경우에는 효과의존상황의 부적 효과가 정보의존상황의 그것보다 크지만($t=5.36$, $df=82$, $p<.01$), PSNI 단어조에서는 두 의존상황의 부적 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t=-.10$, $df=82$, $p>.05$).

여기서 PINI와 PSNS단어조는 각각 지적 특성과 情的 특성만으로 이루어진 단어조이고, PINS와 PSNI 단어조는 이 두 특성을 공유하는 단어조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본 연구의 가설과 이 실험의 예언 2에서 예측하는 대로의 부적 효과는 각 의존상황에서의 인상평정에서 단서로 부각되는 특성만으로 대상인물이 구성되었을 때 가장 크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도 정보의존상황에서는 지적 특성이,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는 情的 특성이 인상판단의 단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 험 Ⅲ

선기 필자의 이원모형에서는 타인에 대한 정보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해 객관적인 호오차원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효과의존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주관적인 행동정향을 판단하는 화친차원에서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호오차원의 인상판단은 지적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이루어지고, 화친차원의 인상판단은 情的 특성을 주요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이러한 사실은 PI 특성만으로 구성된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호오차원 인상이 화친차원인상보다 높지만, PS 특성의 인물의 경우에는 화친차원인상이 호오차원인상보다 높고, 반대로 NI 특성 인물의 경우에는 호오차원인상이 화친차원인상보다 낮지만, NS 특성 인물의 경우에는 화친차원인상이 호오차원인상보다 낮다는 사실(조, 1982 b, 1983)에서 직접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 실험에서도 PI나 PS 등 正的 특성만으로 대상인물을 구성하여 인상판단을 시키면, 호오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PI 인물

에 대한 인상평정치가 PS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보다 더 높지만, 반대로 화친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PS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가 PI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치보다 더 높을 것이다(예언 1).

또한, PINI, PINS, PSNI, PSNS 등 正·부의 특성을 공유하는 인물에 대한 인상판단을 할 때 나타나는 부적 효과(부적 특성의 첨가로 인해 正的 인상이 부적인 방향으로 수정되는 정도)는 호오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NI에 의한 것이 NS에 의한 것보다 크겠지만, 반대로 화친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NS에 의한 것이 NI에 의한 것보다 클 것이다(예언 2).

이 실험은 실험 Ⅱ와 마찬가지로 이 두가지 예언으로 서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려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30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였다. 이들은 63명(호오차원 조건)과 67명(화친차원 조건)의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재료선정 및 작성 실험 Ⅱ와 동일하였다.

절 차 실험의 절차는 실험 Ⅱ와 같았으나 각 조건에 대한 지시문의 내용과 인상판단의 차원만 달랐다. 호오차원조건을 위한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제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점에는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데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지 외에 두 차원의 인상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호오차원의 인상을 3번 강조하여 반복하였다.

화친차원조건의 경우에는 호오차원조건의 지시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하는 구절과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구절만을 바꾸어 넣고, 주관적인 화친차원의 인상을 평정할 것을 3번 강조하여 반복하였다.

지시문의 제시가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자기가 판단할 인상차원을 인식케 하

기 위해 실험자가 호오, 화친차원별로 각각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내가 주관적으로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라고 교실 전면의 칠판에 쓰고, 이를 응답용 소책자의 표지에 적어 넣도록 하였다.

이때 칠판에는 이러한 구절 밑에 각각의 인상판단 평정척도 함께 제시하였다. 인상판단 평정척은 −10～+10의 21점 척도이었는데, 호오차원조건에는 이 평정척 위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이라고 적은 다음, +10 위에 "아주 좋은 사람이다", 0 위에 "반반이다", −10 위에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적어 넣고, 나머지는 숫자만 기입하였다. 화친차원조건에는 "주관적(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이 사람을"이라고 적어 넣은 다음, +10 위에 "아주 좋아한다", 0 위에 "반반이다", −10 위에 "아주 싫어한다"라고 적어 넣고, 나머지는 숫자만 기입하였다.

이러한 평정척을 피험자들에게 설명해 준 다음, 배부받은 소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각 인물의 지시받은 차원에서의 인상을 각 인물 밑에 제시된 이러한 21점 평정척에 평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의 실험이 진행되는데 대략 2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설계 이 실험도 기본적으로 2(인상판단차원) × 2(PI · PS) × 2(NI · NS)에서 뒤의 두 요인이 반복된 요인설계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도 실험 Ⅱ에서와 같이, 맨 뒤의 요인은 正·부 단어조의 결과(부적 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될 것으로, 正的 단어조의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이 요인은 제외된다.

결과 및 해석

본 실험의 종속측정치는 두 조건 피험자들이 제시되는 대상인물에 대해 각각 평정한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의 인상평정치이었다.

正的 단어조 결과 두 인상판단차원 조건의 피험자들이 PI 단어조와 PS 단어조에 속하는 4개씩의 대상인물에 대해 각각 평정한 호오차원과 화친차원 인상평정치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각 단어조에 대한 호오차원과 화친차원 인상평정치의 전체 평균치 및 그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 **正的 단어조 판단차원별 인상평정치 평균** (괄호 안은 SD)

판단차원 \ 단어조	지적 특성(PI)	情的 특성(PS)
호오차원(n = 63)	17.18 (1.64)	14.15 (2.45)
화친차원(n = 67)	12.99 (3.02)	16.72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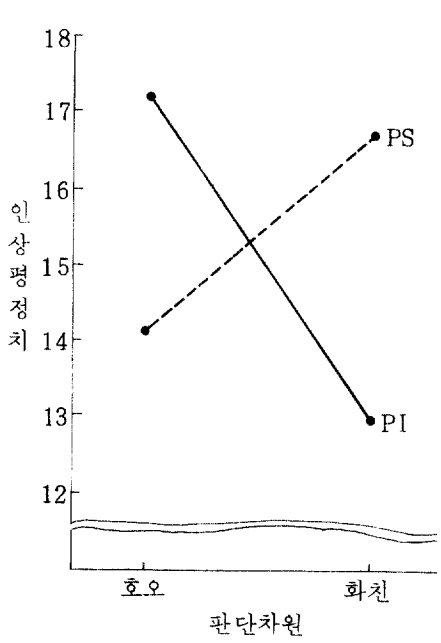
〈표 9〉 正的 단어조 인상평정치의 변량분석 요약표

변 산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836.22	129		
판단차원(A)	42.63	1	42.63	6.88**
집단내피험자(S, 오차 a)	793.59	128	6.20	
피험자내	1,363.87	130		
PI · PS(B)	7.69	1	7.69	1.60
$A \times B$	741.80	1	741.80	154.55**
$B \times S$(오차 b)	614.38	128	4.80	

** $p < .01$

〈표 9〉에서 보면, 호오차원의 전체 인상평정치(15.66)가 화친차원의 전체 인상평정치(14.86)보다 높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1, 128) = 6.88$, $p < .01$]. 이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호오차원인상이 화친차원인상보다 극단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기 필자의 선행실험들(조, 1979, 1983, 1985, 1986)과 장(1978)의 실험에서 거듭 밝혀진 결과로서, 선기 필자의 이원모형에서 예측하는 바대로의 것이다.

또한, 〈표 9〉에서는 판단차원 × PI · PS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1, 128) = 154.55$, $p < .01$]. 이는 〈표 8〉과 이를 도시한 [그림 4]에서 보듯이, PI의 경우에는 호오차원 인상평정치가 화친차원의 그것보다 높지만($t = 9.83$, $df = 128$, $p < .01$), 반대로 PS의 경우에는 화친차원 인상평정치가 호오차원의 그것보다 높음($t = 6.04$, $df = 128$, $p < .01$)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실험들(조, 1982 b, 1983)에서도 밝혀진 사실로, 본 실험의 예언 1을 직접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로 보면, 호오차원 인상은 지적 특성을, 그리고 화친차원 인상은 情的 특성을 단서로 하여 판단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그림 4] 正的 단어조 인상평정치

부적 정보 효과 본 실험에서도 실험 Ⅱ에서와 마찬가지로 [正的 단어조 인상평정치 — 해당되는 正·부 단어조 인상평정치]를 부적 효과의 지표로 삼

아 분석하였다.

각 판단차원 조건의 피험자별로 (PI·PS)×(NI·NS)의 4개 단어조에 해당되는 4개씩의 대상인물에 대한 이러한 부적 효과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각 단어조별 전체 부적 효과의 평균치와 그 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 및 〈표 11〉과 같다.

〈표 10〉 각 단어조 판단차원별 부적 효과 평균치 (괄호 안은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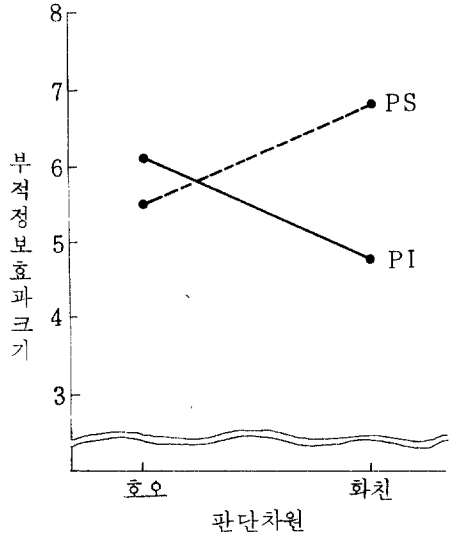
단어조 / 판단차원	PI		PS	
	NI	NS	NI	NS
호오차원(n = 63)	6.98(2.69)	5.17(2.71)	5.87(2.34)	5.17(2.73)
화친차원(n = 67)	3.61(4.11)	5.94(3.25)	5.72(2.98)	7.89(2.93)

〈표 11〉 부적 효과 변량분석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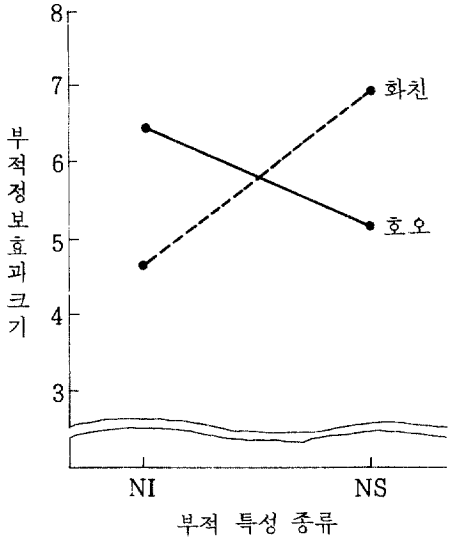
변 산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	F
피험자간	2,933.80	129		
판단차원(A)	.01	1	.01	.00
집단내피험자(S, 오차a)	2,933.79	128	22.92	
피험자내	2,470.27	390		
PI·PS(B)	70.39	1	70.39	15.89**
$A\times B$	216.72	1	216.72	48.91**
$B\times S$(오차b)	567.17	128	4.43	
NI·NS(C)	32.59	1	32.59	5.32*
$A\times C$	398.17	1	398.17	65.01**
$C\times S$(오차c)	783.92	128	6.12	
$B\times C$	7.33	1	7.33	2.46
$A\times B\times C$	12.81	1	12.81	4.30*
$B\times C\times S$(오차bc)	381.17	128	2.98	

* $p<.05$
** $p<.01$

〈표 11〉에서는 PI·PS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28) = 15.89$, $p<.01$]. 이는 PI단어조의 전체 부적 효과(5.41)보다 PS 단어조의 그것(6.18)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正的 단어조에 따른 이러한 부적 효과는 인상판단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F(1, 128) = 48.91$, $p<.01$]. 즉, 호오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PI단어조에서의 부적 효과(6.08)가 PS단어조에서의 그것(5.52)보다 크지만($t = 2.93$, $df = 62$, $p<$



〔그림 5〕 판단차원과 **PI·PS**별 부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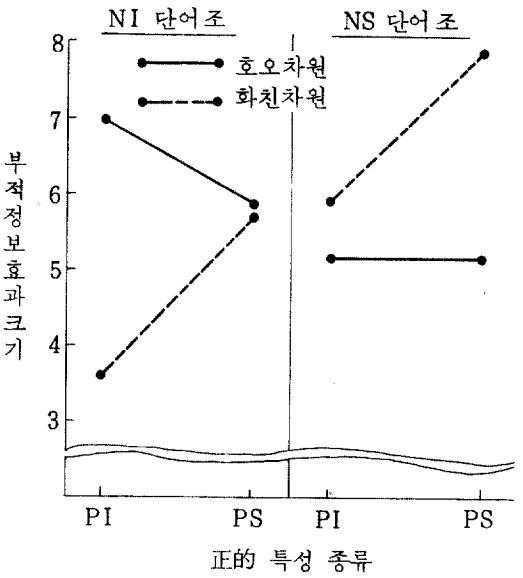


〔그림 6〕 판단차원과 **NI·NS**별 부적 효과

.01), 화친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PS단어조에서의 부적 효과(6.80)가 PI단어조에서의 그것(4.78)보다 크다($t=6.53$, $df=66$, $p<.01$). 이러한 점은 이 결과를 도시한 〔그림 5〕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결과도, 실험 Ⅱ의 결과해석에서와 같은 논리에서, 부적 효과는 각 차원의 인상판단을 할 때 사용되는 해당 단서특성이 우세한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실험의 예언 2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또한, 〈표 11〉에서는 NI·NS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1, 128)=5.32$, $p<.05$〕. 이는 전반적으로 NI에 의한 부적 효과(5.52)보다 NS에 의한 그것(6.07)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실험 Ⅱ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F(1, 128)=65.01$, $p<.01$〕. 즉, 〔그림 6〕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NI에 의한 부적 효과는 호오차원 인상판단(6.42)에서가 화친차원(4.66)에서보다 크지만($t=3.57$, $df=128$, $p<.01$), 반대로 NS에 의한 부적 효과는 화친차원 인상판단(6.92)에서가 호오차원(5.17)에서보다 크다($t=3.86$, $df=128$, $p<.01$).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예언 2를 직접 지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표 11〉에서는 판단차원×PI·PS×NI·NS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F(1, 128) = 4.30$, $p < .05$]. 이는 판단차원과 부적 특성의 종류(NI·NS)에 따른 위에서와 같은 부적 효과의 분화 경향이 그러한 부적 특성이 첨가되는 正的 단어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림 7]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듯이, PI에 NI가 첨가되었을 때(PINI)에는 호오차원 인상판단에서의 부적 효과(6.98)가 화친차원 인상판단에서의 그것(3.61)보다 크고($t = 5.48$, $df = 128$, $p < .01$), PS에 NS가 첨가되었을 때(PSNS)에는 반대로 화친차원 인상판단에서의 부적 효과(7.89)가 호오차원 인상판단에서의 그것(5.17)보다 크다($t = 5.47$, $df = 128$, $p < .01$). 그러나, PS에 NI가 첨가되었을 때(PSNI)나 PI에 NS가 첨가되었을 때(PINS)와 같이 지적 특성과 情的 특성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두 차원 인상판단에서 나타나는 부적 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t_{PSNI} = .32$; $t_{PINS} = -1.46$, $df = 128$, $p > .05$).



〔그림 7〕 부적 효과의 3원 상호작용

이러한 결과는 호오차원 인상판단을 할 때에는 지적 특성이, 그리고 화친차원 인상판단을 할 때에는 情的 특성이 단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 합 논 의

이상과 같은 연속된 세 실험의 결과는 선기 필자의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에서 예측하는 바대로의 것이다.

실험 I에서는 우리말 부적 인물평가형용사도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로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正的 형용사 뿐만 아니라(조, 1985, 1986) 우리말 부적 형용사도 정보의존상황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적 특성어와 효과의존상황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情的 특성어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 인물평가형용사를 요인분석한 김(1982)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녀의 연구에서는 正的 형용사들만 능력요인(지적 특성)과 친호요인(情的 특성)으로 나뉘어질 뿐, 부적 형용사들은 모두 일반적 평가의 한 요인으로 묶여지고 있었다.

여기서 본 연구와 김의 연구 결과의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두 연구의 방법의 차이에서 이러한 원인의 일단을 추적해 볼 수는 있다. 즉, 김의 연구는 피험자로 하여금 3명의 좋아하는 인물과 3명의 싫어하는 인물을 선정케 하고, 이들 각각을 50개의 正的 형용사와 50개의 부적 형용사 척도에서 평정케 한 결과를 요인분석한 것이다. 이때 척도는 0～6의 7점 척도로, 각 인물이 각 형용사 척도에 "해당되는 정도"를 평정케 하였다. 이 경우 피험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평정할 때는 부적 형용사 척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평정을 하고, 싫어하는 인물을 평정할 때는 부적 형용사 척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당된다"라고 평정을 하여, 부적 형용사 척도에서는 인물에 따른 평정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그 대상인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 또는 감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수원, 197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적인 특성 자체가 아니라 대상인물의 부적 특성의 소유 여부의 인상판단시의 중요도를 두 의존상황 각각에서 평정케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의존상황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의 각 부적 특성의 중요도의 차이를 피험자들이 고려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연구의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말 부적 형용사도 지적 특성어와 情的 특성어로 분류되는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다차원분석 등의 결과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실험 Ⅱ에서는 정보의존상황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는 부적인 지적 특성(NI)에 의한 부적 효과가 부적인 情的 특성(NS)에 의한 그것보다 크고, 반대로 효과의존상황에서 인상판단을 할 때는 NS에 의한 부적 효과가 NI에 의한 그것보다 큼이 확인되었다. 더우기, 두 의존상황에서의 부적 효과의 차이는 PINI, PSNS 등 지적 또는 情的 특성만으로 이루어진 대상인물의 경우가 PSNI나 PINS 등 두 종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컸다(〔그림 3〕 참조).

실험 Ⅲ에서는 호오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NI에 의한 부적 효과가 NS에 의한 그것보다 크고, 화친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NS에 의한 부적 효과가 NI에 의한 그것보다 큼이 확인되었다. 또한, 두 인상차원에서의 부적 효과의 차이는 PINI, PSNS 등 지적 또는 情的 특성만으로 이루어진 대상인물의 경우에는 아주 크지만, PSNI나 PINS 등 두 종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인물의 경우에는 두 인상차원에서의 부적 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그림 7〕 참조).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의존상황과 호오차원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고, 효과의존상황과 화친차원의 경우에는 情的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선기 필자의 이원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 Ⅱ와 Ⅲ에서 NI와 NS로 사용된 것이 각각 2개씩으로, 위에서와 같은 효과가 이들 특정 단어의 특징에서 연유한 것일는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正的 단어조의 인상평정치 — 正·부 단어조의 인상평정치〕를 부적 효과의 지표로 삼았다. 이는 Feldman(1966)에 따르면, 인상판단 과정에서의 부적 특성의 수정력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NI와 NS에 의한 이러한 수정력의 의존상황간(실험 Ⅱ) 또는 인상차원간(실험 Ⅲ) 비교를 한 것이다. 그러나, 부적 효과의 지표는 이 이외에도 正·부 동수의 특성으로 구성된 조합의 평가가 평균모형(Anderson, 1965)에서 이론적으로 예언되는 평가치로부터 부적인 방향으로 이탈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예 : Rokeach, 1968 ; Birnbaum, 1972). 따라서, 비록 본 연구가 부적 효과 자체의 분석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부적 효과에 대한 상황결정가설(Canavan, 1969)에 입각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이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즉, 판단 조건에 따라 부적 효과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부적 효과에 대한 두가지 기본적인 설명양식 — 전경·배경가설과 부담지향가설 — 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보의존상황과 호오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NS보다는 NI가 전경으로 부각되지만, 효과의존상황과 화친차원 인상판단의 경우에는 NI보다는 NS가 전경으로 부각되기 때문이거나(전경·배경가설), 또는 전자의 경우에는 NI에 의한 부담이 NS에 의한 부담보다 크고, 후자의 경우에는 NS에 의한 부담이 NI에 의한 부담보다 크기 때문으로(부담지향가설)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적 효과에 대한 이러한 두가지 기본적인 설명양식과 부적 효과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밝히려는 상황결정가설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두가지 기본적 설명양식은 부적 효과의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각 조건에 따른 특수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희(1982). 한국어 성격특성형용사들의 인상형성 차원에 관한 요인분석적 연구.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수원(1976). 대인지각에서의 호오항등에 관한 연구.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장성수(1978). 인상형성에서의 정보통합에 관한 일 고찰. 미발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조긍호(1979). 같은 내용의 인상정보의 수가 호오판단과 화친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2-3,** 132-148.

조긍호(1982a). 대인평가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 호오성과 화친성. 미발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조긍호(1982b). 지적 평가정보와 정적 평가정보가 호오차원인상과 화친차원인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1-1,** 78-100.

조긍호(1983). 정보의 평가특성 및 조합의 크기에 따른 호오와 화친차원 인상반응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1-2,** 279-296.

조긍호(1984). 호오와 화친의 인상판단차원에 따른 대인평가특성의 회상량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2-1,** 174-192.

조긍호(1985). 의존상황 및 인상판단차원에 따른 대인평가특성의 기억량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2-2,** 193-235.

조긍호(1986). 대인평가차원의 분화 : 발달적 조망. **사회심리학연구, 3-1,** 169-198.

Anderson, N. H.(1965).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9.

Birnbaum, M. (1972). Morality judgment : Tests of an averaging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3,* 35-42.

Canavan, D. (1969).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value and risk-ta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Feldman, S. (1966). Motivational aspects of affitudinal elements and their place in cognitive interaction. In S. Feldman(Ed.), *Cognitive consistency*. N.Y. : Academic Press.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 (4th ed.). N.J. : Prentice-Hall.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 :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Y. : Academic Press.

Kanouse, D. E. (1971). *Language, labeling, and attribution*. N.J. : General Learning Press.

Kanouse, D.E., & Hanson, L. R. Jr. (1972). Negativity in evaluations.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 of behavior*. N.J. : General Learning Press.

Lau, R. R. (1979). Negativity in person perception with applications to politic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arducci, A. (1965). Category judgment : A range-frequency model. *Psychological Review*, **72**, 407-418.

Rokeach, M. (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 Jossey-Bass.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Monograph Supplement, Part 2), 1-29.

ABSTRACT

The Negativity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as a Function of Dependent Situations, of Impression-Dimensions, and of Types of Traits

Cho, Geung-Ho and Kim, In-Za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gativity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and to see if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support the Dual-Aspect Model in Person-Evaluation Dimension which was proposed by the first author(Cho, 1982a). For this purpose, three related expriments were conducted using college students as subjects.

In Experiment I, 89 subjec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importance-values of 46 negative personality-trait-adjectives in forming impressions in two different situations: one being the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and the other being effect-dependent-situation. As a result, 19 adjectives were identified to describe intellectual traits and 13 adjectives to describe social(or affective) traits.

In Experiment II, stimulus persons supposed to possess three traits(two positive and one negative) were presented to two groups of subjects to form impressions in two different situations: one group in the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and the other group in effect-dependent-situation.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modifying capacities (the extent to which each trait pulls toward itself the evaluation of pairs in which it appears; Feldman, 1966) of two different traits, NIs (negative intellectual traits) and NSs(negative social traits), in two dependent situ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difying capacities of NIs were higher than those of NSs in the informantion-dependent-situation, while the modifying capacities of NSs were higher than those of NIs in the effect-dependent-situation.

In Experiment III, the same stimulus persons from the second experiment were presented to two groups to form impressions in two different dimensions: one

group in good−bad dimension (favorability dimension) and the other gourp in like−dislike dimension (likability dimension).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of this experiment were, as in the second one, the modifying capacities of NIs and NSs in two impression-dimensions. It was found from this experiment that the modifying capacities of NIs and NS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s in the favorability dimension and the likability dimension respectively.

These reults suggest that the first author's Dual−Aspect Model in Person−Evaluation Dimension (Cho, 1982a) is empirically supported also in experiments dealing with negativity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as well as in other experiments of impression−integration (Cho, 1982b, 1983) and of person−memory (Cho, 1984, 1985, 1986).